

#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이 현재\*

차례

1. 들어가며
2. 국제 성별분업과 이주의 여성화
3.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에 대한 모색
4. 이주와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5. 정체성 저글링과 스케일의 정치
6. 글을 나가며

## 국문초록

이주여성에 대한 국내의 논의들은 이주여성을 단순히 체제나 구조의 희생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체성을 변형시키고 교섭시키는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존재로 볼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의들이 다음과 같은 개념적 문제 자체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 우선 그들은 여성의 이주와 함께 만들어진 혼종적 공간을 언급하지만 그 공간의 다양한 켜들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그러한 논의들은 이주여성들의 행위자성이 이주와 함께 생성된 새로운 장소성의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린다 멕다웰이 발전시키고 있는 “장소” 및 장소의 “다층적 스케일”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이주와 함께 형성된 삶의 공간을 파악하고, 이 장소 속에 어떠한 다양한 스케일들이 교차하고 있는지를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이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를 열어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저글링”하는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핵심어 : 행위자성, 장소, 다층적 스케일, 스케일의 정치, 이주의 여성화

## 1. 들어가며

지구화에 따른 여성 이동의 증가는 제 3세계 여성의 신식민화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장소의 창출 그리고 나아가 초국적 정체성, 혼종성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을 결과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들은 이주여성을 단순히 체제나 구조의 희생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적 정체성을 지구적인 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변형시키고 교섭시키는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존재로 볼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의 사회과학적 논의들은 주로 경험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자체를 집중적으로 성찰하지는 않고 있다.<sup>1)</sup> 예를 들어 이 논의들은 여성의 이주와 함께 만들어진 혼종적 공간을 인식하는

---

1) 물론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이주관련 논의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콘스타블(N. Constable)의 연구조차도 “행위자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리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이주관련 연구들은 “장소”나 장소의 “스케일” 개념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물론 필자는 여기서 이 개념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의 연구들이 아직 경험과학적인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 연구들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들 자체를 성찰하는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 논문의 외연을 국내의 여성이주관련 논의들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데서 출발하지만 그 공간의 다양한 켜들을 펼쳐내어 드러내 줄 수 있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논의들은 “사이 공간” 혹은 “탈영토화”와 같은 개념을 통해 고정된 경계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폐쇄적 장소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주여성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위치에 중첩되어 있는 장소의 다양한 켜들이 정체성의 협상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개념들을 발전시키는 논의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들은 이주여성들을 단순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교섭하고 협상하는 행위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그러한 능력이 이주와 함께 생성된 새로운 장소성의 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필자는 여성의 이주를 통해 형성된 장소의 다양한 켜를 펼쳐내고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도린 메시, 닐 스미스 그리고 린다 맥다웰의 “장소” 및 장소의 “다층적 스케일”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이주와 함께 형성된 삶의 공간을 파악하고, 이 장소 속에 어떠한 다양한 스케일들이 교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필자는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이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를 열어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저글링”하는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로부터 필자는 정체성을 저글링하고 다층적 스케일의 정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시/미시, 경제/문화의 이분법은 교란되며 이와 함께 가해자/피해자의 도식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국제 성별분업과 이주의 여성화

국내 여성주의자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노동의 성별분업 그리고 한국의 가부장적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찰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김은실(2002)과 한국염(2006)의 연구는 전지구적 노동의 국제 성별분업화와 함께 한국에서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서비스업은 자국민에게, 자국민 노동력의 재생산 및 저임금 단순서비스업은 제 3세계 여성에게 할당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식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연구들은 이러한 거시적 구조와 민족국가의 불균등한 경제발전 및 가부장적 정책이 맞물려들어 가면서 성의 상업화와 인신매매적인 상업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은 제 3세계 여성의 몸과 성을 식민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의 지구화와 가부장적 민족국가 정책의 비판에서 시작하는 이 연구들이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나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논리를 불가항력적체제의 힘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의 논문에서 김은실은 여성의 초국적 이주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지구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들이 처한 불균등한 경제발전, 송출국과 수용국의 이주정책과 노동력 이주의 상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sup>2)</sup>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의 여성화가 가부장적 논리 즉 노동의 이분법과 밀접한 관련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남성 이주 노동자들이 선원이나 건축노동자로 국가 경계를 넘는 반면에 여성들은 가사노동자, 성적 서비스업, 연예인이나 매춘여성, 상업화된 결혼을 통해 이주한다.”<sup>3)</sup>는 것이다.

2) 김은실,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제19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2, 32쪽.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지구적 자본의 논리, 국제 성별분업, 국민국가의 가부장적 규범의 힘을 강조했던 연구자들은 원치 않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제 3세계 여성들이 자본, 인종 그리고 가부장적 논리에 의해 어떻게 식민화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점차로 부각되는 이주여성들의 행위자성 혹은 주체성을 간과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은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매춘여성들을 그들이 가진 피부색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경제적인 가치를 발생시키는 상품으로 묘사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포주들에 의해 팔려나가는 수동적 희생자로 분석한다. 결혼이주 또한 결혼을 통한 사회경제적 신분의 상승을 꿈꾸는 제 3세계 여성과 결혼시장에서 짝을 찾지 못한 한국의 주변화된 하층계급의 남성의 욕망 그리고 이들의 욕망을 국제결혼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sup>4)</sup>

여기서 제 3세계 이주여성들은 지구화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최하층 계급으로 이해되며 그들의 몸과 성은 초국가적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산업화되거나 가부장적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 “대상”으로 규정된다. 부지불식중에 이들은 자신이 비판했던 주류 담론과 마찬가지로 이주여성을 빈곤과 가부장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따라서 그러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sup>5)</sup>으로 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은 가부장적 권력에 종속적인 육체로 혹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상품화되는 섹슈얼리티로 환원되며

---

3) 위의 글, 33쪽.

4) 위의 글, 37~43쪽.

5) 양정혜,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47쪽.

이로 인해 이주여성은 강자의 보호나 관용이 필요한 무력한 희생자로 간주되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연구자들은 이주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 특히 젠더 정체성이 갖는 변화의 힘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도 봉착한다. 여기서 이주 여성의 문화, 젠더 그리고 성과 관련된 정체성은 항상 전지구적 자본의 논리나 가부장적 국가의 규범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성이나 젠더와 관련된 이주를 통해 국가나 자본이 강제하는 성적 정체성과 문화적 규범들에 어떻게 저항하고 협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 3.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에 대한 모색

이주여성의 정착이 진행되면서 국내의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주여성의 행위자성(agency)<sup>6)</sup>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회하기 시작했다.<sup>7)</sup> 이제 이들은 전

---

6) 위키백과에 따르면 “철학과 사회학에서 행위자성(Agency)”은 세계에서 행위하는 행위자의 능력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X716672>. 후기 구조주의 이후 철학이나 사회학에서는 통일적이고 의식적이며 합리적인 “주체성” 개념을 대신하여 “행위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 “행위자성”은 사회적 구조(structure)나 집단적 정체성과 대비되는 개별자의 힘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필자는 “행위자성(agency)”을 기존의 구조나 정체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자의 결정, 반성, 적응, 거부, 상상, 교섭의 힘과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성, 젠더, 문화 등 행위자가 구현하고 있는 집단적인 정체성의 내용과 질을 표현할 때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행위자의 힘과 능력을 표현할 때는 “행위자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자의 질적 정체성의 차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차원을 구분하고자 한다.

세계적 경제체제와 민족국가의 담론들이 이주의 여성화를 촉진시켰지만 이것이 여성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이주 여성들은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의 적응과 교섭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수용국뿐 아니라 송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설명하기 위해 “협상(negotiation)”<sup>8)</sup>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수자이다. 이수자는 2004년의 논문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종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에서 지구화와 함께 나타난 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 현상에 주목하고, 디아스포라에서는 “문화의 혼종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

---

7)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종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권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나윤경 외,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자성과 평생교육의 지향점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14권 4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08; 이안지영, 『젠더 시각에서 본 결혼 이주 여성의 ‘협상하는 시민권’』,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이주영,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이주자의 가사노동 경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5; 변혜정, 『조선족 여성의 몸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가능성』, 『여성학논집』 24권 1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7; 이해웅, 『한국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 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권 2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5; 정현주,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09; 김은실/민가영, 『조선족 사회의 위기담론과 이주경험 간의 성별정치학』, 『여성학논집』 23권 1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6 등을 참고하십시오. 김은실 역시 민가영과 공동 작업한 이 논문에서는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은 가족부양이라는 젠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을 선택했던 조선족 여성들이 조선족 사회로 귀환한 이후 조선족 사회의 지역 가부장제 담론과 결합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한다.

8) 체제의 총체적 거부를 의미하는 정통 맑스주의자들의 변혁이나 전복 개념과 달리 교섭 혹은 협상으로 번역되는 이 개념은 부분적인 수정과 교차 등을 지칭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된다. 국내의 많은 논문들은 탈식민 페미니즘과 흑인 페미니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협상”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며 이러한 차이의 정체성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적응과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구화와 국제성별분업은 디아스포라 현상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보여줄 것이고, 혼종성과 타자화는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화의 포섭과 협상, 그리고 선택적으로 수용되는 긴 통과 의례와 새로운 정체성형성을 설명해 주는 분석틀을 이루는 개념이 된다.”<sup>9)</sup>

여기서 이수자는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을 도입하면서 이주여성들이 제국의 문화나 제 3세계의 민족문화와 같은 어떤 특정 집단 혹은 민족단위의 동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산자로서 혼종성을 재현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경험이야말로 그들의 주체성과 교섭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수자는 이주여성들이 어떤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정 장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탈영역화(deterritorialisation)”<sup>10)</sup>되어 있거나, “사이 공간(in-between)”에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을 접속시키거나 교섭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단일한 민족국가의 본질적 토양이 아니라 이질성과 다양성의 자기화 과정을 수반”<sup>11)</sup>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수자는 이주여성들의 젠더 역할 및 정체성 변형능력 혹은 행위자성이 그들의 삶의 위치, 장소의 이동 및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은실 역시 민가영과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2006)에서는 이주여성의 위치와 행위자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

9) 이수자, 앞의 글, 193쪽.

10) 위의 글, 194쪽.

11) 위의 글, 198쪽.



간다. 그들은 이주여성들이 “송출지와 수용국을 횡단하면서 조우하는 다양한 준거집단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다양한 담론에 접속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해 간다.”<sup>12)</sup>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혜정(2007) 역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경험이 구성하는 정체성은 1)모국과의 관계에서 또한 2)수용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중의 경계성(liminality)을 특징으로 한다.”<sup>13)</sup>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안지영(2009)도 샬탈 무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주여성의 시민적 정체성은 그들이 처한 “다양한 주체 위치를 통해 각종 담론적 형성물 속에서 구성되는 것”<sup>14)</sup>이며 이들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조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늘 유동적으로 협상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국내의 논문들이 이주여성의 위치나 행위자성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우선 이주여성이 관련하고 있는 장소의 차이성을 추상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수자는 이주여성의 위치를 “사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주여성의 몸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추상적 차이의 공간에 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수자는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하면서 디아스포라 이론이 집합적 정체성과 사회정치적 공간성, 지정학적 지역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논의들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sup>15)</sup> 그러나 그의 논의는 사이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다양한 켜들을 체계적으로 펼쳐 보여주기 위해서는 장소의 다양성을 구분해주는 개념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

12) 김은실, 민가영, 앞의 글, 42쪽.

13) 변혜정, 앞의 글, 121쪽.

14) 이안지영, 앞의 글, 68쪽.

15) 이수자, 앞의 글, 194쪽.

논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정체성의 탈영역화”라는 개념 역시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의 정체성을 추상화시킬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 즉 특정 영토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이주 여성이 떠도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 역시 지속적인 변화에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위치 속에서 행위자성을 발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장소 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힘들다는 것이다. “이중의 경계성”이라는 개념이나 “다양한 주체 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들도 이주 여성이 다양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지만 그 다양한 위치들을 구분해 줄 개념적 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밖에도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글로벌에 대한 욕망” 혹은 자발적 선택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구조와 행위자성이라는 이분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낡은 물음에 대답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예를 들어 나윤경(2008)은 이주여성들이 이주를 세계화의 일반적인 결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글로벌에 대한 욕망과의 조우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개인적 욕망이 강력한 구조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논의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며, “여성의 이주는 경제적인 목적이 주된 것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sup>16)</sup>라는 점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경제적이지 않는 다른 이유들을 통해 경제적 구조의 제약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지는 않다.

---

16) 나윤경, 앞의 글, 193쪽.

#### 4. 이주와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필자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선 이주여성의 몸을 “탈영토성”이나 “사이 공간” 혹은 “이중적 경계성”에 위치시킬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주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으로 다른 사회적 실천의 “장소(place)”에 위치시키고 이 장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층적 스케일(multi-scale)”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이 이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상호교차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영토”라는 개념 대신에 도린 메시(Doreen Massey), 린다 맥다웰(Linda McDowell) 등과 같은 지리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장소”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들의 “장소” 개념은 무엇보다도 이주여성들의 위치를 지리적 지역(area)으로서의 지역(region)이 아니라 그 공간들에 뻗쳐있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의 교차지점<sup>17)</sup>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칼 리터(Carl Ritter)나 비달 드 라 블라슈(Vidal de la Blache)와 같은 근대의 지리학자들은 “장소”를 “영토”나 “공간”으로부터 구분하지 않은 채 전자를 분명하게 구분되는 영토성 혹은 객관적인 지표로 갖는 물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메시나 맥다웰은 “장소”를 그 경계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영토”로 이해하는 방식을 확실하게 거부한다. 영토의 한정되고 구분된 조각을 고정시키는 지도상 좌표의 집합으로서의 장소라는 통념적인 지리학적 개념은 장소가 인간에 대해 갖는 의미 혹은 인간이 그 장소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관계적 실천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공간이나 영토 개념과 달리 장소라는 개념은 반복적 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17) Doreen Massey,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Minnesota, 1994, pp.4~5.

인간이 위치하는 장소와 긴밀한 연관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장소”를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의 교차지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과정 즉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벡다웰이 지적하고 있듯이 “장소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공간적인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들을 낳는 것은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하는 다층적 경계를 가진 장소들의 중첩과 상호 교차”<sup>18)</sup>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장소” 개념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위치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나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고정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공간적 실천들의 교차지점을 분석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지점에서 장소의 경계와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고 변형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의 개념을 도입하면 우리는 자본의 논리가 관통하고 있는 전지구적 노동시장이나 가부장적 성별체제가 수행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의 장소성을 고정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장소들을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과 관계 그리고 규범적 정체성들이 여성의 이주라는 사회-공간적 실천과 함께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고 변화하는가를 분석해야 하며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소”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영토에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탈각시킨다. 즉 “장소” 혹은 “장소성”의 개념은 특정한 영토를 전제하지 않는 인터넷 혹은 TV와 같은 매체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는 사회적

---

18) Linda McDowell, *Gender, Identity and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p.4.

관계양식 역시 고려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주여성의 “탈영토화” 역시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송출국에서 가졌던 사회-공간적인 실천 및 권력 관계를 이주한 수용국에 연결시킴으로써 송출국과 수용국의 장소성을 모두 “탈구(displacement)”<sup>19)</sup>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주여성이 위치한 장소에 중첩되어 있는 서로 다른 권력과 배제의 복합적 사회적 관계들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이주여성들이 구성하고 있는 장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소의 다양한 쉼들을 펼쳐 보여주기 위해서는 닐 스미스(N. Smith)의 “스케일(scale)”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스케일이란 몸, 가정, 국가, 공동체, 지구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장소들 사이의 경계이다. 사회적 권력관계는 다양한 장소들의 경계와 범위를 결정하여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들을 만들어 내며,<sup>20)</sup> 이를 통해 “장소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장소들 간의 차이”<sup>21)</sup>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스케일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한 장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

19) *ibid.*, p.203. 여기서 맥다웰은 “탈구”를 “dislocation”이나 “disjuncture”가 아닌 “displacement”로 표현하고 있다. “displacement”가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장소를 벗어나는 의미 뿐 아니라 기존의 장소와 새로운 장소들이 연관을 맺음으로서 각 장소의 의미가 변형된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나아가 맥다웰은 리포드(Clifford)에 의거하여 여성의 이주를 통해 이미 완성된 사회문화적 완결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시스템들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탈구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ibid.*, p.209.

20) N. Smith,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 Ticker(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London: Routledge, 1993, p.101.

21) *ibid.*, p.99.

리의 몸을 생각해보자. 맥다웰과 스미스에 의하면 몸은 가장 직접적이지가 가장 작은 스케일의 장소이다. 그리고 몸의 경계는 사회적으로 각축하고 있는 권력관계에 의해 생산된다. 그러나 몸이 가장 작은 스케일의 장소라는 말은 몸이 가정, 국가, 세계 등과 같은 다른 스케일의 장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몸은 또한 다른 장소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sup>22)</sup> 몸이 현현되는 방식이나 타인에 의해 보여 지는 방식은 몸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즉 몸은 그것이 맺고 있는 다른 스케일의 장소 및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몸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및 장소들과 관련되어 다양하고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몸이 가정이라는 스케일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그것이 광범위한 지구적 스케일과 관련하여 구성되는 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스케일의 논의를 이용하여 이주여성의 몸이 관련을 맺고 있는 장소의 다양한 켜들을 설명해 보자. 예를 들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고향력의 필리핀 이주여성의 몸은 초국적 이주라는 그녀의 행위와 함께 좀더 다층적인 스케일과 연결된다. 그녀는 자신이 속했던 필리핀 가정이라는 스케일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딸로, 필리핀 사회라는 스케일에서는 대학졸업자로 재현되었지만 이제 그녀가 새롭게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 가정이라는 스케일에서는 아내이자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로, 그가 속한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NGO의 스케일에서는 가부장적 골레에서 벗어난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 1세계로 이주한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몸은 송출국의 스케일에서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초국적 이주를 했던 어머니로 재현되지만 전지구적 자본의 스케일에서는 교환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나 상

---

22) Linda McDowell, *op.cit.*, p.40.

품 소비자자로, 혹은 국제 성별분업으로 인해 식민화된 최하층 계급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장소로서의 초국적 가정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여기서 가정은 개인들의 성적이고 개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사적 공동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수용국인 한국 사회의 스케일에서 볼 때 가정은 가부장적 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곳이기도 하며 송출국인 필리핀 사회의 스케일에서 볼 때 가정은 이주 여성이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경제적 토대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스케일에서 가정은 다양한 민중문화가 중첩되는 곳이자 성적, 경제적 그리고 계급적 욕망들이 경쟁하고 협상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필자가 또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초국적 이주라는 여성의 행위로 인해 몸, 가정, 공동체와 같은 장소들이 다층적 스케일과 연결되고 이러한 스케일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장소성과 정체성이 창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이주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던 지역적 혹은 국가적 스케일의 장소성은 초국적 혹은 전지구적 스케일의 장소성과 연관되고 반대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논리와 국제적 성별분업은 지역적 혹은 미시적 스케일의 문화적 정체성과 절합되며 이는 결국 다양한 스케일의 정체성들이 각축을 벌이는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가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장소성의 변화 혹은 탈구가 의미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기존에 힘을 갖던 담론적 실천들이 장소의 경계가 변함에 따라 그 장소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가 출현한다는 것은 다층적 스케일을 매개하는 또 다른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상치 못한 장소성의 창출은 또한 이주여성들을 규범과 관련된 행위자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상황으로 이끈다.

물론 다층적 스케일의 창출 자체에서 발휘되는 이주여성들의 행위자성은 엄밀한 의미의 선택행위 즉 구조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선택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행위자성은 약한 의미 즉 자신이 관계 맺고 있던 기존의 장소성을 새로운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병렬시키고 중첩시키며 때로는 수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지구적 혹은 민족적 스케일과 관련된 다층적 사회 구조들을 매개하는 자이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장소를 여타의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적 관계들에 접합시킴으로써 그 장소에 지배적이었던 사회 구조의 논리를 탈구시킨다.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를 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장소와 구조를 탈구시키는 행위능력은 기존의 장소와 구조 밖으로 나아가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구조들을 다른 것과 절합시키고 탈구시키는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행위자성을 이렇게 약한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거시적 구조의 막강한 힘에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이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대신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구조들이 절합되고 탈구되는 과정에서 이 구조의 논리가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장소성이 발생하게 되며 새로운 장소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주여성들은 특정 장소가 갖고 있는 논리에 대해 다양한 반응방식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아르준 아파두라이가 언급하고 있듯이, 새로운 장소 안에서 “사람들과 이미지들은 예견치 못한 장소, 다시 말해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대중 매체가 퍼둔 방역선과 내 지역의 확실함 바깥에서 서로 마주치게”<sup>23)</sup> 되며, 이로써 상상력을 통한 행위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23)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역,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13쪽.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 5. 정체성 저글링과 스케일의 정치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초국적 이주를 통해서 새롭고 다층적인 스케일의 장소를 열게 된다는 것으로 그들의 행위자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위자성은 비록 그것이 약한 의미일지라도 그들이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안에서 특정한 하나의 스케일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의 정체성들을 다른 스케일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들을 다른 정체성들과 공존시키고 경합시키며 교섭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입증할 때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와 연관된 행위자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여기서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가 언급하고 있는 “문화들을 저글링하기(to juggle cultures)”<sup>24)</sup> 혹은 조디 딘(Jodi Dean)이 언급하고 있는 “저글링 기술(juggling skills)”<sup>25)</sup>의 개념을 빌려오고자 한다. 필자가 디아스포라 이론이나 탈식민주의에서 자주 사용하는 “혼종”이나 “협상(negotiation)”이라는 개념 대신에 유색인 여성주의자들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저글링(juggling)”이라는 개념 사용을 제안하는 이유는 정체성을 변형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다양한 스케일의 장소성과 밀접한 관련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24)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francisco: Spinsters/Aunt Lute, 1987, p.79.

25) Jodi Dean,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Berkeley: Uni. of California Press, 1996, p.36.

과 그들이 처하게 되는 장소의 스케일은 다변적이며 따라서 그들은 공을 던졌다가 다시 받는 저글러(juggler)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을 선택하여 꺼내 쓰기도 하고 그것들을 기존과는 다른 스케일과 관련시키는 가운데 반추하고 변형하기도 한다.

물론 글로리아 안잘두아나 조디 딘은 제 1세계에 이주해 살고 있는 유색인 여성들이 자신이 다양한 시점에서 구성된 각양각색의, 때로는 모순적이기까지 한 집단적 정체성들을 자기 안에 공존시키고 경합시키는 주체성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개념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안잘두아는 유색인 여성들이 멕시코 문화에서 인디언으로 사는 법, 앵글로의 시선에서 멕시코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하는 모순적인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결국 다양한 시점에서 문화들을 저글링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조디 딘 역시 최근의 여성주의 이론가들은 모두 다양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그리고 때로는 모순적인 느낌들, 경험들 그리고 기대들이 우리 정체성들 안에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다원적 목소리를 내는 주체성(multiple voiced subjectivity)”<sup>26)</sup>이 우리의 정체성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sup>27)</sup> 이렇게 볼 때 저글링의 기술은 다양한 정체성들을 하나의 차원에서 단순히 혼합하거나 동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과 상황에 따라 그 각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섭시키고 공존시키는 주체의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다양한 관점과 관련하여 제안된 저글링의 기술을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와의 관련 속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즉 필자

26) Norma Alarcón, “‘Doing’ Theory” in Gloria Anzaldúa(ed.), *Making Face, Making Soul: Haciendo Caras*, San Francisco: Aunt Lute, 1990, p.366.

27) Jod Dean, op.cit., p.36.

는 한 개인이 특정한 스케일과의 관련 속에서 형성했던 자신의 정체성들을 다층적인 스케일의 장소에 새롭게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공존시키고 결합시키며 교섭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저글링”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주여성들이 이주와 함께 탄생한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정체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글링”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저글링의 기술은 행위자가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성과 정체성 혹은 사회적 관계들을 소환하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사례는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2006)에서 “문화간 절충과 타협”이라는 목차 하에 제시하고 있는 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타난다.

“뭘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상대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요. 요리는 시어머니, 아이가 아프거나 약이 필요하면 남편, 가족관계 문제는 필리핀 친구인 000과 주로 상의해요.”<sup>28)</sup>

여기서 이 여성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통째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그것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각각의 다른 장소성에 연결시킴으로써 정체성의 저글링을 시도하고 있다. 즉 요리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은 한국의 맥락에, 가족 관계의 규범과 관련된 것은 필리핀의 맥락에 따름으로써 한국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정체성과 필리핀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을 저글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우즈베키스

28)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131쪽.

탄 고려인의 인터뷰 역시 이주여성이 자신의 집과 시댁이라는 서로 다른 장소에 서로 다른 정체성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은 그런 말을 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저는 시댁에 갔을 때는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 줄 테니 둘이 있을 때는 내방식도 받아 달라고 말해요. 나는 20년간 살던 방법 다 버리고 왔는데 조금 내 뜻대로 받아주라 그래요.”<sup>29)</sup>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펴낸 『느린 언어로의 낮설지 않은 대화2』에 소개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느웬 티 차우의 이야기 역시 “저글링” 개념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베트남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베트남 가족과의 연관 속에서는 가족의 생계부양 조력자로서의 정체성을, 한국 가정과의 연관 속에서는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을 꺼내 놓는다. 그 어떤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에 필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꺼내 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 저글링이 특정 상황에서 그것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성과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 저글링의 능력은 특정한 정체성을 그것과 관련된 장소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스케일의 장소에도 적용시키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간다. 앞서 예시했던 느웬 티 차우 역시 결혼이주와 더불어 형성된 초국적 가정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들을 서로 다른 스케일과 연결시킴으로써 각각의 차이를 반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 중 어떤 하나를 기존과는 다른 스케일의 장소성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스케일의 장소에서 요구되는 정체성을 반추한다.

29) 위의 책, 132쪽.

“한국과 베트남 문화가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부모 부양책임은 아들이 진다면, 베트남에서는 딸이 부모와 가족들을 돌보고 결혼해서도 그렇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들은 왜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여전히 친정에 대해서 염려하고 책임져야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베트남 여성결혼 이민자에게는 시부모들이 그들의 생활에 왜 그렇게 관여를 하는지, 남편은 모든 것을 부모와 상의하면서 부모의 결정에 복종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sup>30)</sup>

다층적 스케일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느웬 티 차우의 정체성 저글링은 결국 그녀가 이 중 어떤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을 교섭시키는 능력으로까지 발현된다. 즉 그녀는 베트남에 가 어머니를 부양하거나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부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가정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며, 모든 것을 부모의 결정에 맡기는 며느리가 되지는 못하지만 한국 음식의 요리법을 익히고 며느리로서 의무라 생각되는 제사를 지내며 가족 기념일을 챙기는 최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을 수행하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김은실과 민가영의 논문(2006)에서 분석의 초점이 되었던 조선족 노동 이주여성의 “수용과 거리두기”<sup>31)</sup> 능력 역시 이주경험 더불어 나타난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관련 속에서 수행되는 정체성 저글링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중국 내의 조선족 공동체는 가부장적 성 역할을 중심으로 노동의 분화가 진행되던 곳이었지만 조선족 여성의 한국으로의 노동이주 그리고

3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느린 언어로의 낯설지 않은 대화2/이주여성 삶 이야기』, 2008, 18쪽.

31) 김은실/민가영, 앞의 글, 55쪽.

그들의 귀환과 더불어 변화하였다. 이것은 곧 조선족 공동체가 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귀환을 통해 다중적 스케일의 장소성을 갖게 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제 조선족 공동체는 중국 내부에 경계를 두는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일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간 조선족 여성들이 송금하는 돈 그리고 귀환한 여성들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초국적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귀환한 조선족 여성은 조선족 공동체 안에서 부여받았던 자신의 성 역할에 거리를 두게 된다. 이것은 조선족 공동체 안에서 이주 여성들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다중적 스케일의 장소와 관련하여 저글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거기서 이주경험을 한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 사회라는 새로운 스케일 속에서 획득한 초국적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혹은 다국적 상품 소비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기존의 공동체가 자신에게 부여했던 성역할 혹은 성별분업을 각각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꺼내 놓기도 하며, 나아가 전자의 정체성을 후자의 스케일에, 후자의 정체성을 전자의 스케일에 놓음으로써 기존의 정체성을 반추하고 이를 변형시키게 된다.<sup>32)</sup> 여기서 조선족 여성들은 양육과 돌봄이라는 성 역할의 내용을 조선족 공동체라는 스케일 뿐 아니라 초국적 노동시장이라는 스케일과도 연관시키는 가운데 변형시킨다. 즉 그들은 양육과 돌봄을 자식을 곁에 두고 기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두 번째 의미의 정체성 저글링은 이주여성들이 특정 스케일과의 관련 속에서 형성되었던 기존의 정체성을 새로운 스케일과 연결시키는 능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가장 사적인 양육을

---

32) 위의 글, 61~65쪽 참고.

공적인 시장에서의 노동과 연결시키며 가장 경제적인 행위를 가정이라는 미시적 스케일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다층적인 스케일과 연관시키며 저글링한다.

만약 이주여성들이 저글링의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해 즉 자신의 행위자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로 새로운 스케일의 장소를 창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스케일의 정치가 될 것이다. 이주여성의 행위자성을 스케일의 정치와 연결시키는 논의는 정현주에 의해 국내의 도입되었다.(정현주, 2008; 정현주, 2009) 물론 이 논의들에서 정현주는 스케일의 정치가 정체성 저글링의 기술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는 인식에는 도달하고 있지 않지만 여성들이 이주를 통해 새로운 스케일의 창출하거나 기존의 스케일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하는 행위자성을 발현할 정치적 기회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정현주는 이주와 관련된 스케일 정치의 형태를 경계넘기(border crossing)와 공/사의 경계 허물기를 통해서 설명한다. 즉 경계를 넘음으로써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를 창출하거나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에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에 연결시킴으로써 특정 장소와 특정 정체성 간의 결합을 깨는 것이 바로 스케일의 정치라는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여성이 국경을 대거 횡단하는 현상은 가부장적 근대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가경계와 그에 결부된 정체성의 결합을 깨는 행위이다.”<sup>33)</sup>

정현주는 집단적인 운동의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스케일 정치에 대한 사례로 페사(P. R. Pessar)가 제시한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NGO를

33)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권 제6호, 대한지리학회, 2008, 905쪽.

인용한다. 과테말라 난민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초국가적 스케일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장을 만듦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던 자국의 가부장적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4)</sup> 또 다른 예로 정현주는 가사노동 이주여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장 공적인 것을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가장 사적인 것을 가장 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스케일의 정치가 수행될 수 있음을 보였다.<sup>35)</sup> 가사 노동자에게 가정은 재생산의 공간인 동시에 생산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여성들은 자신의 가사노동을 가장 공적인 스케일과 연결시킴으로써 가부장제가 자신의 몸에 부여했던 정체성과의 결합을 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혼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활동 영역을 가정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결혼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한 지원단체 등에서 일하는 것 혹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역시 기존의 정체성을 저글링 할 새로운 스케일을 창출하는 행위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즉 새로운 스케일의 장소를 창출하는 일이며 이 스케일 속에서 기존의 정체성을 저글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다양한 스케일의 장소를 만들어 내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타자의 정체성을 변형하고 협상하는 행위자성을 확장하는 일이 된다.

---

34) 위의 글, 905쪽.

35) 위의 글, 908쪽.



## 6. 글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주여성의 정체성 저글링과 다층적 스케일의 정치 속에서 거시적/미시적 스케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이 논문을 맺고자 한다. 정체성 저글링과 스케일의 정치 속에서는 미시적 스케일의 실천을 통해 거시적 스케일의 장소나 구조적 논리가 통제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의 장소와 실천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스케일, 구조 혹은 정체성들이 경로를 이탈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거시적인 것은 오히려 미시화되고 미시적인 것은 거시화되며 이런 의미에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의 이분법은 모호해진다. 자본주의적 노동 시장은 이주여성들의 가사노동을 통해 실현되며 자식을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로서의 가장 사적인 욕망은 초국적인 스케일의 노동과 경제활동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정체성 저글링과 스케일의 정치 개념은 구조/행위자 혹은 강제/자발의 이분법도 해소시킨다. 초국적 가사노동자들은 전지구적 자본의 논리와 더불어 진행된 국제적 성별분업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논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논리를 다른 스케일과 연관시키고 접속시킴으로써 성별분업의 논리를 교란시키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본의 논리와 가부장적 국민국가의 성 역할 규범이 낳은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구조에 참여하여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젠더 규범을 변형시키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물론 미시/거시적 스케일, 강제와 자발의 이분법을 벗어난 장소성과 행위자성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이 모든 이주 여성의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상황이 갖는 특수

성을 고려하여 행위자성의 가능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적 작업은 경험사례의 발굴을 통해 끊임없이 반성되고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해 두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경제체제의 논리가 지역적 문화 정체성 혹은 젠더 정체성을 통해 어디까지 교란되고 탈구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은실, 민가영, 『조선족 사회의 위기담론과 이주경험 간의 성별정치학』, 『여성학논집』 23권 1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6, 35~72쪽.
- 김은실,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여성학논집』 제19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2, 29~46쪽.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기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 통권 70호, 비판사회학회, 2006, 10~35쪽.
- 나윤경 외,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자성과 평생교육의 지향점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14권 4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08, 185~213쪽.
- 노승희, 『전지구화 시대의 대항 페미니스트 주제: 글로리아 안잘두아의 유색여성 페미니즘과 메스티자 주제론』, 『영어영문학21』 제18권 1호, 21세기 영어영문학회, 2005, 27~52쪽.
- 변혜정, 『조선족 여성의 몸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가능성』, 『여성학논집』 24권 1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7, 111~149쪽.
- 아파두라이, 아르준,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역,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종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권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89~264쪽.
- 이안지영, 『젠더 시각에서 본 결혼 이주 여성의 ‘협상하는 시민권’』,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 이주영,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이주자의 가사노동 경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5, 33~38쪽.
- 이혜웅, 『한국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 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권 2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5, 107~143쪽.
- 이현재, 『정체성 개념분석-자율적 주체를 위한 시론』, 『철학연구』 제71권 1호, 철학연구회, 2005, 263~292쪽.

- 양정혜,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47~77쪽.
-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권 제6호, 대한지리학회, 2008, 894~913쪽.
- 정현주,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권 1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09, 109~121쪽.
- 한국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국제결혼을 통한 전복지역 이주여성의 올바른 지원방안을 위한 워크숍』, 2006, 3~17쪽.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느린 언어로의 낯설지 않은 대화2/이주여성 삶 이야기』, 2008.
- Norma Alarcón, “Doing’ Theory” in Gloria Anzaldúa(ed.), *Making Face, Making Soul: Haciendo Caras*, San Francisco: Aunt Lute, 1990, pp.356~369.
- Anzaldúa, Glori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francisco: Spinsters/Aunt Lute, 1987.
- Constable, Nicol(ed.),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5.
- Dean, Jodi,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Berkeley: Uni. of California Press, 1996.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1990), in L. McDowell(ed.), *Undoing Place?*, London: Arnold, 1997, pp.231~242.
- McDowell, Linda, *Gender, Identity and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Massey, Doreen,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Minnesota, 1994.
- Massey, Doreen, “Spaces of Politics”, Doreen Messey(eds.), *Human Geograph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1999, pp.279~294.
- Smith, Michael Peter, *Transnational Urbanism: Locating Globalization*,

Blackwell, 2001.

Smith, N.,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 Ticker(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London: Routledge, 1993, pp.99~101.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X716672>.

Abstract

## Feminization of Migration, Creating multi-scalar Places and Juggling Identities

Lee, Hyun-Jae

The Korean discussion on feminization of migration has begun to suggest, that migrant women are not only as victims of structure, but also as agencies who translate or negotiate their established structure and identities. But in this paper, I'd like to say, that their suggestions overlook the conceptual analysis of agency or space in itself. Most of all, their concept of negotiation can't show the relation between their agency, immigrant and identities sufficiently. Even though they use the concept "hybrid", "deterritorialisation" or "in-between", in order to express the space of immigrant women, they can't explain the concrete differences of the space, nor distinguish between its multiple layers.

So, according to Linda McDowell, I will introduce the concepts of "place" and "scale", and explain that immigrant women negotiate their identities in the multiple place that is made through their new socio-spatial practices and these practices result in overlapping and intersecting places with multiple and changing boundaries. On the basis of these concepts. I will show that the agency of immigrant women can be realized in process of inauguration of multiple scaled places and juggling their identities in the multiple scaled places.

**Key words** : agency, place, multiple scale, politics of scale, feminization of migration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